한국불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불논단



설해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필자가 머무는 사찰은 인구소멸 지역의 산간에 자리하고 있다. 신도 구성만 보더라도 지역 불자보다 도시에서 찾아오는 불자들이 두 배 이상 많다. 이들이 사찰을 찾는 이유는 신행과 함께 자연 속에서의 쉼과 치유에 있다. 이러한 흐름을 마주할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10년 후, 30년 후 이 사찰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올해 유사한 환경의 사찰들을 조사하며 나름의 해답을 찾아볼 계획이다.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당장의 운영을 이어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찰의 존속과 효과적인 포교를 위해서는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바람이 생겨났다. 종단이 지역별·유형별로 사찰의 발전 방향과 존속 방안을 제시해 줄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다.

시선을 넓혀 보면 이 질문은 개별 사찰을 넘어 종단 전체로 확장된다. 10년 후, 30년 후 우리 종단은 어떤 모습일까.

이미 20여 년 전부터 종단 존립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동안 총무원 집행부는 승려복지 확대, 요양시설 운영, 포교 거점 사찰 조성, 출가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별 포교역량 결집대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성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의 연속성이 약화되고 사업이 단절되는 사례 또한 반복돼 온 것이 현실이다.

종단 운영 아우를 체계적 설계 필요해
미래 전략 컨트롤타워 구축이 첫 걸음
총무원장 선거서 구조적 해법 제시되길

이제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단기성과 중심의 정책을 넘어 종단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중장기 미래 전략 수립, 데이터 기반 분석, 사회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단계별 실행 계획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그래야만 종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종단의 현실을 짚어보면 이러한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 개별 사업과 현안 대응에는 역량이 집중돼 있으나, 종단 전체의 미래를 조망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인다.

종단이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목표와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전략, 이를 뒷받침할 정책 연구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각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평가와 보완이 반복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종단의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다.

총무원장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다양한 공약이 제시된다. 승려복지, 교구 활성화, 포교 확대, 비구니 역할 강화 등은 매번 빠지지 않는 핵심 의제다. 이는 그만큼 중요하지만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뜻이기도 하다. 반복되는 공약의 이면에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구조와 계획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단기적 성과를 약속하는 공약을 넘어, 30년 후에도 건재한 종단을 만들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업을 가능하게 할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다.

롱테일의 가르침 '버려지는 존재란 없다'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미국의 크리스 앤더슨은 2004년 디지털 시장을 관찰하며 롱테일 법칙(Long Tail Theory)을 세상에 내놓았다. '긴 꼬리의 역설'로 불리는 이 개념은 판매량이 적은 다수의 비주류 상품군이 소수의 인기 품목보다 더 큰 총합 수익을 창출한다는 원리다. 이는 상위 20%의 핵심 제품이 매출의 80%를 점유한다는 전통 경제학의 파레토의 법칙을 정면으로 뒤집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세계 최초의 온라인 서점 아마존(Amazon)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물리적 공간의 한계로 오프라인 매장이 포기했던 비주류 서적들을 판매목록에 올렸다. 그 결과, 1년에 단 한 권 팔릴까 말까 한 수많은 꼬리들이 모여 베스트셀러 몇 권의 수익을 압도하는 성과를 냈다.

유통 및 저장 비용이 제로에 수렴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과거 외면받던 비주류 콘텐츠가 축적되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한다. 물리적 제약이 증발한 자리에서 긴 꼬리는 더 이상 잉여가 아니라, 생태계를 지탱하는 또 다른 축으로 부상한다. 무수한 틈새 콘텐츠가 보편적 콘텐츠와 나란히 공존하며 전체를 떠받치는 구조, 이것이 롱테일의 진면목이다. 효율의 칼날 아래 도려내졌던 미미한 존재들이 사실은 생태계를 풍요롭게 가꾸는 주인공임을 입증한 셈이다.

이제 시선을 시장 밖으로 돌려보자. 우리는 경제적 가치로서 롱테일을 찬양하면서도, 정작 사회적 문법은 여전히 화려한 머리에만 매몰돼 있지는 않은가. 생산성이라는 명분으로 주변부의 삶을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아마존의 성공에서 읽어내야 할 본질은 매출의 비결이 아니다. 세상에 팔리지 않는 책은 있어도 무가치한 책은 없다는 준엄한 진실이다.

디지털 환경서 비주류 콘텐츠의 부상
세상 받친 미미한 존재의 증명 사례
낮은 곳 향한 시선·포용, 공생 실천 길

이 교훈은 모든 생명이 저마다의 귀함을 지닌다는 불교적 지혜와 궤를 같이한다. 만물이 우주의 인드라망처럼 촘촘히 연결돼 있기에, 세상에 함부로 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볼품없다며 고개를 돌리는 길가의 돌 하나, 이름 없는 풀 한 포기조차 제자리에서 고유한 진리를 설하고 있다. 너와 나, 나와 남을 가르는 분별심을 거두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정견(正見)의 가르침이다.

만물 중 스승 아닌 것이 없으니, 롱테일 이론은 정견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라 할 만하다. 가려진 것들을 들춰내고 하찮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식의 전환은 단순히 시장의 확장을 넘어 가치 체계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사소한 다수가 결정적 근간이 되는 순간,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껏 우리는 정점에 서기 위해 분투해왔고, 선택받지 못한 다수는 낙오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꼬리 밑으로 숨어들어야 했다. 디지털 시대의 롱테일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존재들이 실은 세상을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였음을 알리는 존재론적 역습이다.

이제 관점을 옮겨야 할 때다. 정점의 화려함 대신 꼬리의 깊이와 넓이를 응시해야 한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둘 아니게 바라보고 하나로 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공생(共生)의 참된 의미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화쟁, 정치가 답할 차례다

불교도대법회서 정치권 '화합' 한목소리
선거 앞 갈등 대신 타협 가치 존중해야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행된 불교도 봉축대법회는 '화쟁'이라는 분명한 화두를 던졌다. 종단 지도자와 정·관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쟁의 지혜로 갈등을 넘어 공존과 상생의 대도약을 다짐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특히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치 지도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그 메시지는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하지만 문제는 늘 그렇듯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화합과 상생은 구호로 완성되지 않는다. 선언 이후의 행보에서 그 진정성이 판가름 날 뿐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어에서 "정치와 사회의 지도자가 상대를 꺾어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도반으로 여길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진정한 안정을 찾고 대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며 "원융회통 정신에 따라 세대 통합과 국민 평안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각 당 대표들도 여야를 넘어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의 삶을 밝히겠다고 화답했다.

화쟁의 가르침은 서로 다른 견해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실에서 차이를 인정하되 대립을 극복하는 지혜를 뜻한다. 이는 오늘날 정치와 사회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 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상대를 설득의 대상이 아닌 '타도할 적'으로 규정하는 데 익숙하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언어는 특히 더 거칠어지고, 타협은 쉽게 '패배'나 '야합'으로 매도되기 일쑤다. 이런 풍토에서 화합과 상생을 정치 과정에 구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결국 봉축대법회의 의미는 정치권이 이 자리를 진정한 '약속'의 장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서로 다른 물을 섞어 연못을 맑히는 합수식은 상징적이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의 합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상대를 인정하는 순간 지지층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고, 타협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길을 선택할 때 비로소 화합은 현실이 된다.

오늘날의 갈등은 정치적 진영 대립을 넘어 세대 간 인식 차이, 양극화,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이런 상황에서 화합은 '좋은 말' 이상의 구체적 실천을 요구한다. 여야가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 청년 문제부터 머리를 맞대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불교계 또한 이 책무에서 자유롭지 않다.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불교 스스로 갈등을 중재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보듬는 실천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 국민 역시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를 비판하는 동시에, 극단적 주장에 편승하기보다 타협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화합은 지도자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공통의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일상의 차원에서부터 시작된다.

화합과 상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그 실현 방식은 추상적일 수 없다. 정치권은 구체적 협치로, 불교계는 실천적 자비로, 국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응답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4월 29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4월 29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4월 2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청운사
• 주 지 : 도원 (속명 : 유삼영)
• 주 소 : 김제시 청하면 대청리 산91-2

위 사찰은 종지종풍을 더이상 수행 할수가 없어 귀 종단을 탈종합니다.

2026년 4월 20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